



서울 올가을 첫 영하권

서울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두터운 옷차림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 최고기온은 7도에 머물렀지만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 역시 크게 떨어졌다. 이번 추위는 2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박미나 선임기자

'8만전자 회복'까지 갈 길 멀다

삼성전자 주가 5만6700원 마감... 자사주 매입 카드 '약발' 본원 경쟁력 회복이 우선... IC나노D램 성공에 운명 달려

바다까지 떨어지던 삼성전자 주가가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본원 경쟁력 약화가 주가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8만전자'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주가는 18일 5만6700원으로 마감했다. 7만 원대를 넘나들던 주가가 4만 원대로 추락하자 삼성전자는 15일 장 종료 뒤 10조 원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3개월 동안 3조 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유례없이 폭락했다. 7월 16일 주당 8만7700원이었던 삼성전자 주가는 14일 4만9900원까지 하락하며 '4만전자'가 현실화됐다. 삼성전자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가며 주가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주가 폭락으로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받은 주식담보 대출 또한 담보유지비율을 맞출 수 없게 됐고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주식담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풀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주가 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18일 장 시작과 함께 5만7000원에 거래됐고 이후에도 5만7000원대를 유지하다 오전 11시 기준 5만6300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김운호·강민구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사업 부 주요 제품의 영업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발표는 추가 하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 하락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이전만큼의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먼저 미국 대선에서 노벨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며 미국 우선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법에 부정적인 만큼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과 기술력 우려 또한 주가 하락 원인이다. 차세대 메모리인 HBM 기술력이 하이닉스에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또한 소문만 무성할 뿐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메모리 수요가 HBM으로 몰리는 양극화 추세를 보여 HBM 경쟁력 저하는 치명적이다.

여기에 기존 주력 제품인 D램 매출 또한 부진하며 전영현 DS 부문장이 D램 개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경우에도 기존에도 약점이던 수율 문제가 부각되면서 막대한 투자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 역시 시장이 삼성전자에 다시 투자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본원 경쟁력 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가 부양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이 다수의 불명확한 부분들을 우선 확인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가 반응은 서서히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HBM 및 미래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외 불필요한 부분을 털어내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을 복원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업황 하락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됐으며 본원 경쟁력 회복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원 경쟁력 회복은 IC 나노 DRAM 성공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준규 기자jyang@skyedaily.com

스카이데일리 제3회 열린포럼
주제: 이념·역사·문화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요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층 세미나실

조우석 | 김규나
1부: 제2회 미디어 리터러시 세미나
■발제 1. 한강 작가의 병든 문학 어디에서 비롯했나/조우석 평론가
■발제 2. 기술어진 운동장' 한국문단 처방전 있나/김규나 소설가

최광 | 김태산
2부: 범국민 NGO '투루스코리아(Truth Korea)' 출범
■발제 1. 위대한 지도자 출현을 대망한다/최광 前보건복지부 장관·대구대 석좌교수
■발제 2. 탈북 국민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충언/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

토론
·공성남 호남의김시민연대 상임대표·김정현 백서서정책연구소 소장
·박주현 KCPAC 한국대표·변호사·정우진 자유와책임 대표·정우혁 길위의학교 대표

주최: 스카이데일리 | 주관: 라스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투루스코리아(Truth Korea)
후원: 고려대학교투루스포럼·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대·대한민국국가원로회·남북함께국민연합·서울대투루스포럼·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자유민주시민연대·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한강구국동지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연론인모임·호남의김시민연대

당원 게시판 의혹의 글... '韓의 침묵'

韓대표, 논란 커져도 함구 일관
가족 개입 의혹에도 반응 없어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다. 실명 전체가 노출되지는 않지만, 실명이 아니면 글을 게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의 글들이 게시되는 과정에 대해 37가지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한 대표 가족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누군가에게 게시를 의뢰한 것 △한 대표 가족과 동명인들이 게시한 것 △명의 도용을 통해 글을 게시할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 3가지 모두의 경우에 대해 간단하게 사실확인이 가능한 사람은 한 대표이다. 그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동명인'이라고 밝혔지만, 보름이 지나고 있지만 가족들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1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의혹은 사실상 바뀌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당의 증거 인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영기자jebo@skyedaily.com

드디어, 총선백서가 나왔다.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가 쓴 '대세-반대세, 이희천의 재집권전략'

이 책은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패한 원인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진영이 현 상태로 어영부영 가면 2년 뒤 지방선거 완패, 3년 뒤 대선에서 완패해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김정은체제·적화통일로 가는 대문이 열린다. 이 비극을 막으려면 윤석열정부·국민의힘·애국단체들·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이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공산화를 막고 전세를 역전할 방법이 있다. 이 책이 그 구체적인 재집권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86쪽 (신국판변형) | 정가 16,000원
도서출판 대추나무
문의 010-8799-1500

일찍이 이 책이 나왔더라면 자유민주진영이 현재처럼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시지탄(때늦은 탄식)의 아쉬움이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저자 이희천